

서울시민의 세대간 문화예술 향수의 차이와 시사점¹⁾

- 세대의 구분
- 세대간 여가활동과 문화향수의 차이
- 세대간 문화예술 경험과 인식의 차이
- 정책적 시사점
- 세대간 미디어 문화에 대한 취향의 차이

세대의 구분

-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서 반복되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듯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서울시민들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대별로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을 경험하여 왔음.
- 사회의 변화에서 한 시대의 문화적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세대(generation)라고 한다면, 특정한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보이는 서울시민도 2035세대(20세부터 35세까지), 386세대(36세부터 45세까지), 기성세대(46세 이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세대분류는 최근의 사회연구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류방식임.
- 기성세대는 대부분 한국사회가 빈곤하였을 때 아동시절을 보내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을 청·장년기에 경험한 세대로, 경제성장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을 살아온 세대임. 상대적으로 인생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386세대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누린 세대이며, 87민주화 항쟁과 88올림픽 이후 문화적으로 자유로워진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장년기에 들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이것은 이들 세대의 문화향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음.
- 2035세대는 고도경제성장 시기에 아동 시절을 겪고, 높은 소비성향과 자유분방한 가치관

1) 본고는 2004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의 일부를 분석한 것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 2.7%임.

을 지닌 세대로 사회나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삶, 개인적인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함²⁾. 최근의 문화 환경에서 한국영화의 붐이나 게임산업, 한류열풍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 문화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 것으로 보임.

세대간 문화예술 경험과 인식의 차이

○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교육

- 아동기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은 일생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세대들 간의 유소년 시절의 문화예술 경험은 경제 성장의 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됨. 최근에 올수록 서양악기나 미술 등을 가르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가정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술 교육이 행해지고 있음.
- 세대별 18세 이전의 예술교육 경험을 질문하였을 때, 기성세대(5.7%)에 비해서 386세대(9.9%)가 예술교육 경험이 더 많았고, 386세대보다는 2035세대(25.2%)가 훨씬 많이 예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세대별 성인 이전 예술교육 경험

(단위 : %)

세대구분	없음	있음
2035세대	74.8	25.2
386세대	90.1	9.9
기성세대	94.3	5.7

<표 2> 세대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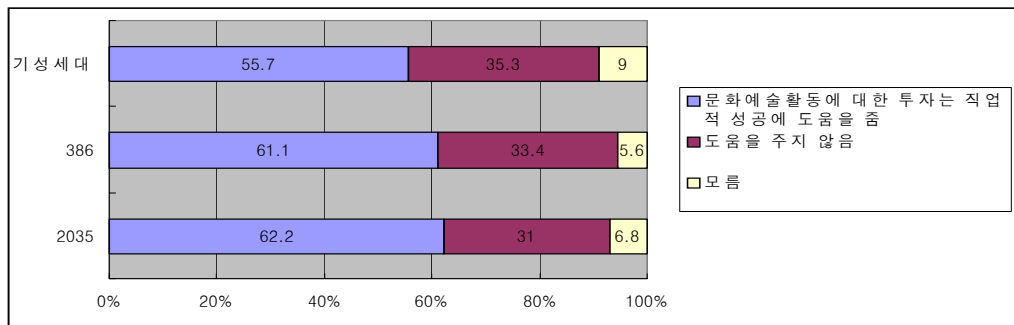
세대구분	클래식 청취		공연·전시회 관람		여행 중 문화유적 답사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2035세대	71.0	29.0	74.8	25.2	41.5	58.5	43.8	56.2
386세대	81.3	18.7	86.0	14.0	54.4	45.6	62.3	37.7
기성세대	93.7	6.3	94.1	5.9	73.6	26.4	77.9	22.1

2) 중앙일보, 2004년 10월 4일자 기사

- 문화예술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인 이전의 가정환경에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 내에서나 외에서 예술을 체득할 기회가 많았음. 젊은 세대일수록 클래식 음악 청취나, 부모와 함께 공연이나 전시회에 갈 기회가 많았고, 서점에서 바로 책을 선물로 받은 경험이 많았음.

○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 예술교육경험은 문화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으로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 2035세대는 57.4%가 동의하는 데 비해서 기성세대는 47.6%가 동의하고 있음.
-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적 성공의 관련을 묻는 질문에는 2035세대가 “관련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고, 다른 세대도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음.



<그림 1> 세대별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적 성공에 대한 태도

○ 문화예술분야에서 소비지출 선호의 세대간 차이

- 서울 시민들이 생활에 있어 가장 큰 투자분야는 세대구분없이 자녀교육 분야임. 그 외의 분야에 있어 상대적 지출비중은 세대별로 서로 다름.
- 386세대는 자녀가 보통 학생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며, 자연스레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출비중(1.5%)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음.
- 기성세대의 경우도 자녀가 아직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나이가 들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임. 반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출비중(0.4%)은 386세대보다 더 낮음.

- 2035세대는 아직 미혼이거나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고, 대신에 외식(16.1%)이나 문화예술활동(7.8%), 레저/스포츠/여행(12.1%), 외모가꾸기(17.1%) 등에 많이 지출하는 양상을 보임.

<표 3> 세대별 교육·문화생활 분야에서의 소비지출 비중

(단위 : %)

구 분	본인교육	자녀교육	외식	문화예술 활동	건강	레저/스포츠/ 여행	외모 가꾸기	계
2035세대	12.1	22.3	16.1	7.8	12.5	12.1	17.1	100.0
386세대	2.3	67.9	5.8	1.5	14.6	5.0	2.9	"
기성세대	2.0	41.3	10.5	0.4	38.2	5.0	2.6	"
전체	5.9	41.0	11.4	3.5	22.2	7.7	8.3	"

세대간 미디어문화에 대한 취향의 차이

○ TV 매체

- TV 매체를 통해 세대별 문화적 취향을 살펴보면, 386세대나 기성세대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음.
- 반면에, 2035세대는 쇼/오락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문화적 취향을 보임.

<표 4> 세대별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단위 : %)

세대구분	뉴스/시사	다큐멘터리/ 교육	쇼/오락	드라마	영화	홈쇼핑	스포츠	없음	모름/ 무응답	계
2035세대	26.8	4.6	30.6	24.4	6.6	0.2	6.4	0.2	0.2	100.0
386세대	47.1	4.7	6.1	31.9	2.3	0.3	6.1	0.6	0.9	"
기성세대	51.1	4.4	4.6	32.1	2.8	0.2	4.6	0.2	-	"

○ 음악장르

- 선호하는 음악장르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젊은 2035세대는 댄스, 락, 발라드와 같은 종류의 가요를 선호하고, 영화음악과 팝송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음.
- 386세대는 발라드와 트로트, 클래식 음악을 더 선호하며, 기성세대는 66.1%가 트로트를 선호함.

<표 5> 세대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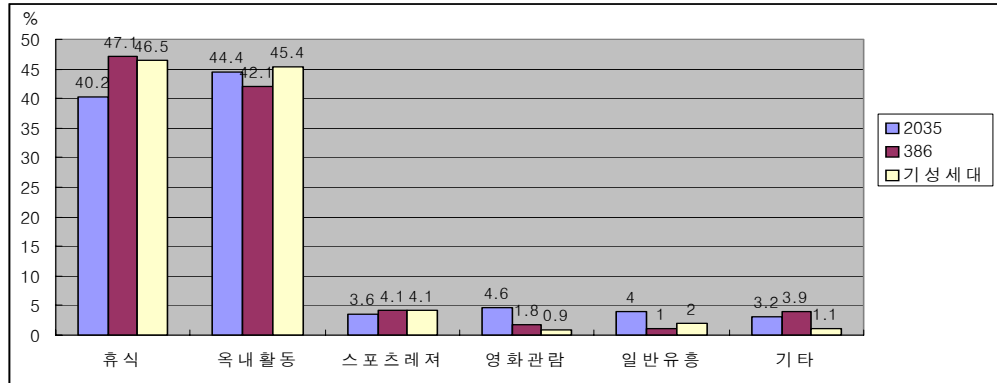
(단위 : %)

세대구분	클래식/ 오페라	가요 (댄스)	가요 (락)	가요 (발라드)	가요 (트로트)	국악	영화 음악	팝송	기타	없음	계
2035세대	4.8	23.0	9.0	41.0	4.6	0.2	5.2	9.4	0.8	2.0	100.0
386세대	7.3	11.4	0.6	32.7	33.2	0.6	3.5	4.4	-	6.1	"
기성세대	5.2	3.5	0.7	9.2	66.1	1.3	0.7	3.7	1.7	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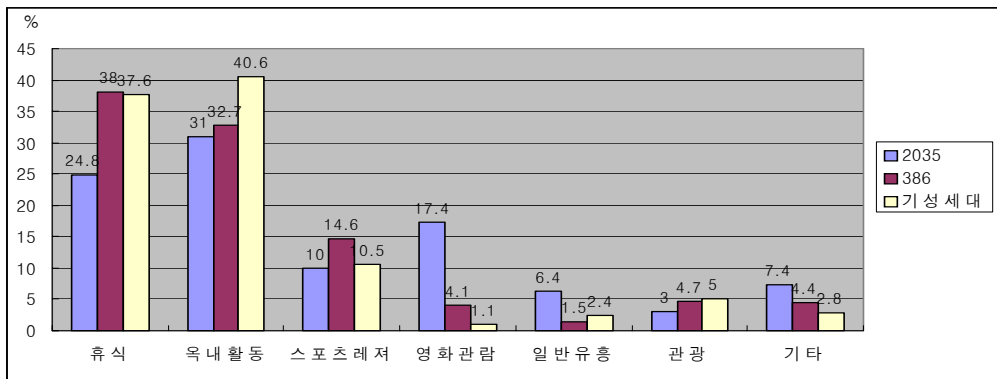
세대간 여가활동과 문화향수의 차이

○ 세대별 여가활동

- 주로 하는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젊은 2035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휴식이나 옥내활동과 같은 소극적 활동보다 적극적 활동을 더 많이 하며, 그 차이는 주중 보다 주말에 더 큼.
- 2035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영화관람과 일반유흥활동을 더 많이 즐기고 있음.
- 386세대는 휴식과 스포츠레저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음.
- 기성세대는 옥내활동을 약간 더 많이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음.



<그림 2> 세대별 주중 여가활동



<그림 3> 세대별 주말 여가활동

○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여가생활 만족도는 세대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모든 세대가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보다는(2035세대 17%, 386세대 12.9%, 기성세대 16.9%) 불만족스러워(2035세대 52.2%, 386세대 63.1%, 기성세대 61%) 하고 있음.
- 자신의 여가생활에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기성세대가 가장 많은 반면에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도 기성세대에서 가장 많음.
- 2035세대의 경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적은 반면에 만족이라는 응답도 다른 세대에 비해 적고 대신 보통이라는 평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많음.
- 386세대의 경우는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불만족의 응답이 63.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고,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2.9%에 그쳐 다른 세대에 비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세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

세대구분	여가생활 만족도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35세대	8.8	43.4	30.8	15.8	1.2	100.0
386세대	13.7	49.4	24.0	12.6	0.3	"
기성세대	17.2	43.8	22.1	13.8	3.1	"
전체	13.0	45.3	25.9	14.2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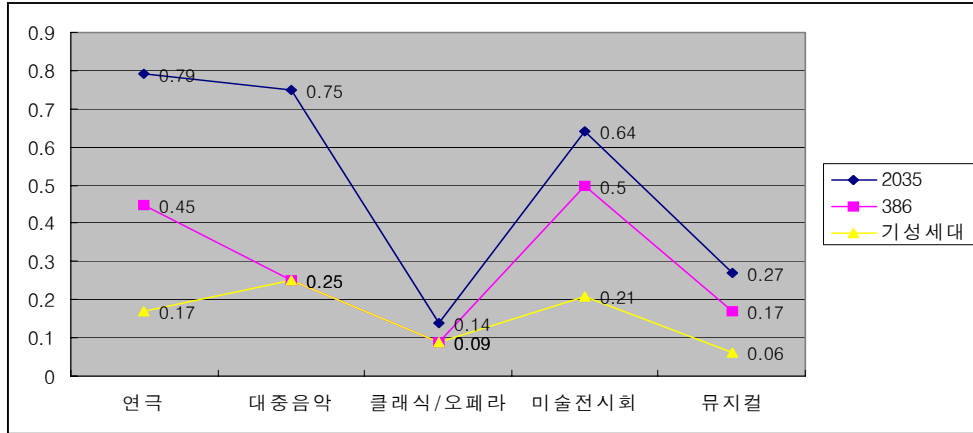
○ 문화예술 관람

-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전통예술공연과 무용공연을 제외하고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연극과 영화, 뮤지컬은 2035세대(총 8.91회/년)가 가장 많이 관람하고 다음이 386세대(총 3.52회/년)이며, 그 다음이 기성세대(총 1.61회/년)로, 기성세대의 관람횟수가 가장 적음.
- 대중음악과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2035세대의 관람횟수(총 0.89회/년)가 386세대(총 0.34회/년)나 기성세대(총 0.34회/년)보다 많음.
- 미술전시회에는 2035세대(0.64회/년)와 386세대(0.50회/년)가 기성세대(0.21회/년) 보다 많이 감.
- 문화예술행사 전체적으로 볼 때, 2035세대(총 10.75회/년), 386세대(총 4.76회/년), 기성세대(총 2.38회/년)의 순으로 관람횟수가 많음. 2035세대는 기성세대보다 4배 이상 문화예술 행사 관람횟수가 많았음.

<표 7> 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 : 회/년)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영화	계
2035세대	0.23	0.79	0.75	0.08	0.14	0.64	0.27	7.85	10.75
386세대	0.24	0.45	0.25	0.16	0.09	0.50	0.17	2.90	4.76
기성세대	0.19	0.17	0.25	0.03	0.09	0.21	0.06	1.38	2.38



<그림 4> 세대별 문화예술행사 연간 관람횟수

정책적 시사점

○ 세대간 문화예술 향수의 차이점 종합

- 젊은 세대일수록 성장기의 물질적 풍요에 힘입어 다른 세대보다 어린시절 예술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욕구도 더 높고, 문화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여김.
- 또한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문화예술활동이나 레저/스포츠/여행 등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지출하고 있음. 2035세대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사나 뉴스 프로그램보다 쇼/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음악장르에서는 댄스나 락을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성세대나 386세대는 시사나 뉴스프로그램을 더욱 선호하며, 음악장르에 있어서는 트로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
- 젊은 세대일수록 적극적 유형의 여가활동을 즐기며 문화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함.

○ 정책적 함의

- 공공 문화정책에서 문화수요의 발굴과 문화적 다양성의 제고가 아주 중요한데, 문화에 대한 세대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수요를 발굴하는데 중요함.
- 개인의 인생주기에 따라 문화향수 수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은 대체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문화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잣대가 아닌 세대별 잣대로 보아야 할 것임.

-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와 여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전체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문화를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향수하는 층이 젊은 세대인 현실에서 각종 문화와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젊은 층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기성세대나 중간 세대의 문화 향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서울에서 세대간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기성세대나 386세대를 문화의 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특히,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열악한 기성세대를 위해서는 빈곤한 시대를 벗어난 현실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그들 삶을 이끄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함.
- 386세대와 기성세대가 문화 향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성장기 때 문화예술 경험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음. 이들 세대의 문화 향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학습의 장으로 유도하여야 함. 지역의 공공문화시설들, 예를 들어 문화관, 구민회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386세대와 기성세대를 위한 문화학습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필요함. 문화학습을 통하여 문화수요를 창출하고 문화 향수를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기성세대와 386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여가와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이를 위해 서울 축제나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에서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한 세대간의 이해를 돕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권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6
kjchoh@sdi.re.kr